

도림선교 이야기

Dorim Mission Magazine

2019년 | 통권 15호 SPRING





도림선교 이야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D o r i m P r e s b y t e r i a n C h u r c h

잔잔하던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너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는 시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고픈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도림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이
하나님 나라에 씨앗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Contents

02 담임목사칼럼 | 내 증인이 되리라 정명철 담임목사

선교이야기 1

- 04 체 코 | 이종실 · 김진아 선교사
- 06 가 나 | 남상열 · 이세리 선교사
- 09 인 도 | 김상수 · 박은숙 선교사
- 12 필리핀 | 최동아 · 홍경신 선교사
- 14 남아프리카공화국 | 최인규 · 박정희 선교사
- 16 캄보디아 | 송준섭 · 박진경 선교사
- 18 몽 골 | 허성환 · 박미자 선교사
- 20 몽 골 | 김영주 선교사
- 22 말레이시아 | 박은덕 · 이해정 선교사

특집 - 태국

- 24 태국을 품다
- 26 태국 비전트립 간증 | 한고은 학생, 윤한울 학생
- 28 태국 비전트립 Photo News
- 30 태국 샤하밋스쿨 건축 지원 개요

선교이야기 2

- 32 중국인교회 | 최황규 · 김은혜 선교사
- 34 멕시코 | 아사엘 선교사
- 36 베트남 | 최다니엘 · 배에스터 선교사
- 38 동티모르 | 이대훈 · 김현옥 선교사
- 40 케 나 | 김홍일 · 이해정 선교사
- 42 코스타리카 | 유한나 · 이성재 선교사

선교사 이야기

- 45 2019 도림교회 선교현황



도림선교이야기 통권 제 15호

발행일 2019년 5월 19일 발행인 정명철 편집인 도림교회 해외선교부
발행처 0737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37
전화 02-2181-6000 팩스 02-846-5221 홈페이지 www.dorim.net
디자인 월커뮤니케이션즈 02-2277-7690

“도림선교이야기”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칼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 했다가 보다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행전입니다. 성경 66권중에서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기록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말하면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요, 최후의 지상명령입니다.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어디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많지만 예수 믿으라고 따뜻하게 전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절망에 빠져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일날 온 가족이 웃으면서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죽기 전에 나도 교회에 가보자” 하고 예배에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문을 나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예수를 믿으라고 나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수 믿으라고 하여도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통하여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놀라운 일을 만드십니다.

둘째, 유대는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훌륭하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주님께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초기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이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해서서, 성령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님을 희망으로 받아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최후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갈 수 없으면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살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곳이요, 소외된 곳입니다. 우리민족이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북한 땅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영등포역전의 노숙자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사진이 나와 있길래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녀선교회에서도 함께하고 개인적으로도 소년소녀 가장들을 헌금을 통해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넷째,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는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오지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12,000여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 미전도종족이 6,000여개 가까이 됩니다. 이슬람권에 거의 70%가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선교는 성령님의 권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가 있습니다. 다 가는 선교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도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최후 지상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갈 수 없으면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도림의 성도들은 모두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를 위하여 살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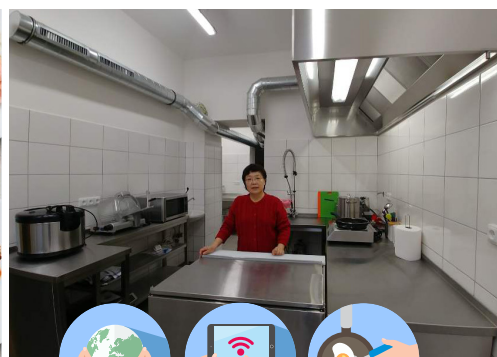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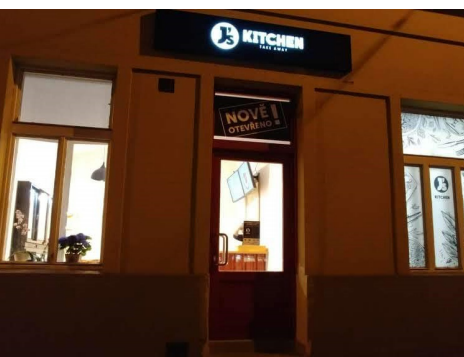
여러분의 담임목사

정 명 철





Czech Republic 체코 | 이종실 · 김진아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9년 사순절에 드디어 J's Kitchen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매장을 계약해서 거의 6개월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정자립 선교 플랫폼으로서 J's Kitchen은 문화적 접근으로서의 '선교 현장과의 만남'입니다. 복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형성된 신앙의 양태가 있듯이 문화적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복음 증언의 접촉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음이 다른 문화와 만나 또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양태를 만들어야 복음이 그 사회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나 K-pop문화를 단지 선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일시적 행사로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복음 증언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J's Kitchen은 한국음식을 체코 일반시민들의 일상의 식단으로 정착시키는 문화적 도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장면은 중국음식이지만 한국식으로 바뀌어 일반 서민의 음식이 된 것처럼 한국음식문화를 체코 일반시민들의 일상의 식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작은 헌신(오병이어)이
큰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

아내 김진아 선교사가 지난 체코인들을 초청하여 대접하면서 한국음식에 대한 접촉점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증언하기도 하고, 때론 복음 증언의 비전을 공감하고, 동역의 차원으로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지난 25년 간의 노하우로 자신의 조리법을 만들어 조리법에 따른 체코 식자재를 포장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해 음식 맛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여 광고차원에서 테이크 어웨이 간이식당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J's Kitchen은 체코 현지교회의 선교를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후배에게 그동안의 사역을 인계한 후, 제가 체코교회를 방문할 때 아내가 저와 동행을 해서 지방 소도시와 시골 체코교회 젊은 목회자들 특히 목회자 부인들의 어려움을 목격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2013년 “교회재산 반환과 보상의 법” 체결이후 체코교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교회재정자립의 문제입니다. 그들에게(현지교회와 현지목회자 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이고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한국식품점이 생기기 전에 체코식자재로 한국 음식을 체코 분들에게 대접했던 노하우들이 있어 아내의 조리법을 인터넷 판매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대로, 김진아 선교사 조리법이 <체코음식>으로 체코시민들의 삶 속에 정착하는 음식문화가 되어 폐쇄적인 체코인들의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아울러 재정자립의 과제를 해결해야하는 체코교회에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는 2021년까지 2년 정도 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동역하고 있는 체코 형제복음교회와 앞으로의 동역을 논의하기로 이곳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작은 헌신(오병이어)이 큰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떡을 떼는 주의 만찬 제정의 말씀은 오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와 달리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씀이 더하여 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처럼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호도 J's Kitchen 이라고 정했습니다. Jesus의 “J” 즉 “예수의 부엌”(오천 명을 먹이신)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책임지는 아내의 이름이 진아(Jina)의 “J”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함께 기도해주시고 마음을 같이해주신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 덕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 제목

- ① J's Kitchen이 체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 ② J's Kitchen의 사역을 통하여 현지 목회자 부부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Ghana 가나 | 남상열 · 이세리 선교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도림교회와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역돌봄의 주체인 컴퓨터미션학교

컴퓨터학교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도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한 컴퓨터 실습교실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닝거학교의 초등4학년~중등3학년 181명의 학생들이 매주 2시간씩 가나 ICT 정규커리큘럼에 맞춰 컴퓨터 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자판과 마우스 사용을 어려워 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스텝과 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능숙하게 잘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019년 전반기에는 풀 가스펠학교의 중학생 30명을 위한 단기실습교실,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컴퓨터 실습교실, 그 외 정규과목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작은 영화관을 마련하여 교육·문화·선교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학교와 교회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모집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션센터인 컴퓨터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가능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는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볼타노회의 가까운 이웃, 영등포노회

영등포노회 여전도회연합회에서 지원한 아톤코 생수공장이 모든 설비를 마치고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아톤코 생수공장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면 볼타노회의 자립과 노회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드 아크라데 교회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기철에 비바람이 들어쳐 어려움이 컸었는데, 안락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교제를 원했던 성도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 성도님의 정성어린 우물헌금으로 볼타지역 위쪽에 위치한 오라오라(Worawora)라는 마을에 우물사역을 진행하여 교회와 지역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볼타노회와 함께 하는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의료선교사역이 계속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두 번째 교사교육 세미나를 열고, 43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1박2일간 역량강화훈련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있는 가나한인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안치아시, 서베이라인 지역에서 의료선교사역에 이어 2월에는 오도콤포지에서 교회성도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활성화 된 가나 ICT 정규커리큘럼에 맞춘 컴퓨터 실습교육



풀 가스펠학교의 중학생 30명을 위한 단기실습교실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컴퓨터실습교실



아톤코 생수공장의 설비



올드 아크라데 교회건축이 시작 된 모습



두번째 어린이교회 교사교육 세미나



1박2일간 43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어린이교회 교사교육 세미나

가나한인교회 지원으로
오도콤포지에서 의료선교사역





오도쿰지역주민과 교회성도님들을 돌보는 의료선교사역

도림교회 성도님들!

선교지에 와서 3년째 보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엔 당연한 것들이 지금은 모든 것이 고마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만나는 외국인들과 이 주민들을 환대하는 일이 참으로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번에 부친상을 당하여 가나에 잠시 귀국한 에드몬드 예보아 목사님(도림교회)과 한나 오포리 목사님(영은교회)을 만나고서 우리 영등포노회와 그리고 교회에서 환대해 주신 일에 대해 볼타노회를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가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선을 이루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① 컴퓨터실습교실을 통해 더 많은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 ② 볼타노회선교사역이 더욱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협력사역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India 인도 | 김상수 · 박은숙 선교사



Dream Story

늘푸른 노인대학 노인의 날

어르신들과의 만남은 늘 즐겁습니다. 날씨 탓인지 어르신들이 자주 아프신 것 같습니다. 병상에 계신 어르신들과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자주 가정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사진을 자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영정사진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며 좋아하십니다. 지난해 세계 노인의 날(10월 1일)을 축하하며 찬마리 지역의 몇몇 어르신들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여행(박소라지역)

하이테아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아쌈주의 박소라(Bagsora)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이 줄에서 130km 떨어진 곳입니다.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9시간을 이동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도에서 일부 5km정도는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강을 지날 때에는 다리가 놓여 있지 않아 보트를 타고 이동하였는데 참으로 오지였습니다. 마을의 대부분은 전기도 없고, 대나무로 대충 벽을 만들어 거처로 삼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은 약 50가정 정도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은 힌두교도들입니다. 외지사람의 방문이 없었던 터여서 다들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낯선 이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고 덕분에 예정에 없던 집회를 이틀에 걸쳐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처음보는 이의 이야기 임에도 호의를 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었고 다음날 오후에는 손님을 대접한다며 손수 농사한 찰밥과 바나나등을 가지고 찾아와 대접해주셨습니다.

이튿날 밤에는 예배를 마치고 동네사람들이 저희를 환송한다며 가정에서 가져온 배터리로 등을 밝히고 스피커를 연결해 음악을 틀고 서로가 춤을 추는 진풍경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은 50여명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테아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가 유일하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 10여명의 학생만 공부하고 이마저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했습니다.

가까운 주변마을까지 합치면 수 백 명의 어린이들이 있지만 가난한 경제상황과 열악한 환경(교사는 두 명뿐이고 건물도 대나무로 벽만 세운 교실)으로 학교를 보낸다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좋은 교사를 후원해주길 간절히 요청하는 부모님들의 손길을 잇을 수가 없습니다.



“
어려워지는 인도의
선교적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



마음과 마음으로(H2H) 집회

소망의 집에서 치유사역팀과 함께 특별저녁집회를 가졌습니다. 약물 마약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 40여명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소망의 집에는 10명의 HIV 양성 반응자와 마약중독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엘림하우스

많은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며 큰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 본 양계(자연방목 양계)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300마리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닭들이 줄어듭니다. 현재 4개월 지난 시점에 절반의 닭들만 남아있습니다. 건강하게 키워서 싱싱한 유기농 달걀로 HIV감염가족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볼 계획이었지만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가 너무 자주 내려서인지 풀들이 너무 빨리 자랍니다. 파인애플과 베를넷 나무를 심은 곳에 매주 풀을 베긴 하지만 다 끝내고 돌아서면 처음 제초작업을 했던 것처럼 금방 풀이 자라납니다.

궂 기도 제 목

- ① 늘푸른 노인대학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 ② 인도의 가난한 지역과 열악한 상황이 해소되어 지역 아이들의 배움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 ③ 인도선교의 사역에서 비자와 사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Philippines 필리핀 | 최동아 · 홍경신 선교사

“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18)

”



소생의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추운 계절을 보내고 새봄을 맞
는 우리의 마음도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도림교회 비전센터 건축이 순조롭게 마무리로 달려가는 소식
을 접할 때 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도와 수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셋째 주일이 저희 호소리오
홀리스톤교회의 창립 12주년이었습니다.

아태기술학교도 카비테로 이전하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년 12월 18일에 3기를 졸업시키고 지금은 4기 두 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학교
에 등록하여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은 복음전
도의 기회로 삼고 전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18일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새로 신축한
건물 2층에서 처음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PRE-KINDERGARTEN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위해서 대기중입니다.

THE BIG FOREST ACADEMY는 3월 29일 첫 졸업식을 합니다.
NURSERY와 PRE-KINDERGARTEN 학생 20명이 졸업하게 되고,
6월 새학기에는 TODDLER, NURSERY, PRE-KINDERGARTEN,
KINDERGARTEN 이렇게 4개반을 운영할 것이며 이미 교육청 실사
를 받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장로님, 온 성도님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곳에서의 사역에 풍족한 은혜가 이루어짐을 늘 기억합니다.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 좋은 크리스천 학교가 되도록 기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① 호소리오 홀리스톤교회가 지역의 복음화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도록
- ② 아태기술학교가 복음전도의 귀한 통로가 되도록
- ③ THE BIG FOREST ACADEMY가 지역에 좋은 크리스천 학교가 되도록





Republic of South Africa

남아프리카공화국 | 최인규 · 박정희 선교사

남아프리카 땅 끝에서 도림교회 정명철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가뭄이 끝나니 간헐적 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가까운 나라인 모잠비크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시작된 모잠비크에 사이클론(태풍)이 불어서 석탄 채굴과 수입이 어려워지자, 남아공의 발전소가 간헐적으로 가정에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루에 1번 정도이지만, 심한 날은 하루에 3~4차례 전기를 끊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매년 새로운 작은 불편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젊은이, 예술인 전도사역

지역 고등학교에 가서 방과후 미술을 가르치며 전도의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학 진학률이 졸업생의 5%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이 수치는 나중에 취업률과도 연계되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좋은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가 많아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더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범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미술대학이나 디자인기술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고등학교 방과후 미술 교실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고등학생은 제가 미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 동양인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 아주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더욱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서 얻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

“
부룬디와 콩고에서 온
난민들을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의 복음으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난민, 빈민 구호사역

남아프리카에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내전으로 고통 받는 난민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주로 부룬디, 콩고에서 온 난민들인데 이 난민들의 경우 아무런 기술이 없고, 이곳 언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경경비가 강화되면서 이곳으로 오는 난민들의 숫자가 근 몇 년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친구들을 감사함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 목

- ① 젊은이 예술인 전도사역을 위해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세워지도록
- ② 흑인빈민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 교회가 스스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 ③ 고등학교 전도사역 가운데에 안전을 허락해주시고 아이들이 마음 문을 잘 열 수 있도록



가족의 근황

전도의 통로인 미술수업

캠퍼스 젊은이들과 함께

Christ Church에서의 예배



어린 시절에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공부를 하게 된 사연을 소개합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후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였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부친을 도와서 매일 지게를 지고 다니며 농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등학교를 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어서 궁리 끝에, 근처 살고 있던 서양 선교사님 집 마당을 아침에 쓸었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불려서 왜 마당을 쓸고 있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유학까지 다녀와서 당시 대전대학교(현.한남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근 마을 교회에 와서 초등부 부장으로 봉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때 저는 초등학교 학생으로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대학교 교수님인 멋진 부장 선생님을 “헬로 헬로!” 하면서, 철딱서니 없이 놀리면서도 많이 따랐습니다.

선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들입니다. 함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사정을 알게 되고, 그 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999년부터 캄보디아 현장에 선교사로 재 파송되어 와서 그동안 문맹자들을 위해 수십 개의 마을에서 문해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딱한 사정을 듣고 알게 될 때마다 공부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도왔습니다.

룽웁선교센터 도서실에서 그림지도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



“
선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품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이들입니다.
함께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딱한 사정을 알게 됩니다.
”

그러던 중, 2007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창빈 사무총장님의 연결로 프놈펜 병레앙 빈민청소년 센터 그리고 룽웁마을센터 교실 청소년들 30여 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2010년 8월부로 지원 받는 것을 자진 중단하고 종료합니다. 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도 중단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는 여기저기에서 장학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도림교회 김 집사님과 자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본 적도 없는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참여하여 오늘까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이기에 참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풀썩까에 시골 마을 교회 목사님에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목회를 하시면서 농사일도 함께 하시지만 많은 식구들을 돌보기도 어려워서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밑으로 두 딸이 장학 지원을 받아 차례로 프놈펜에 유학을 와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는 금년 여름에 지난 10여 년간 도림교회도 참여해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으로부터 매월 목회 활동비 도움을 받던 것을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딸들이 씨엠립과 프놈펜에서 좋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돕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도 행복도 커진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무실 앞을 오가는 봉사관

직원들을 보면서 그냥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들 중에는 저희 빈민청소년 센터 장학생 출신들도 있습니다. 또 낮에는 교실로, 저녁에는 야간 경비를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 한국에 유학까지 다녀와 저희 봉사관 관리 총책임자가 되어 근 20여년 함께 하고 있는 무명한 저보다 더 유명한 직원도 있습니다. 이 직원이 결혼을 해서 얻은 “쓰리 화이팅 보이; three fighting boys”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도 힘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프놈펜의 아이들, 몬돌끼리 고원 지대 부농 소수민족 기숙사생들, 씨엠립 “Song of Hope” 어학원생들, 캄뽕 츠낭과 따께오 아이들, 그리고 캄뽕짬 아이들에게 비록 거리로는 프놈펜에서 100~400km 떨어져 살고 있지만 직접 또는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매월 30여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돌보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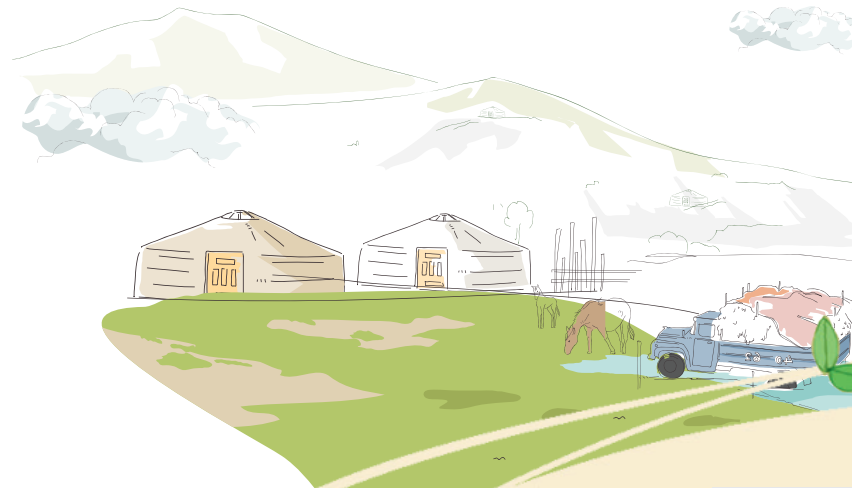
이러한 일을 중단 없이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조건 없이 기도로 나눔의 실천으로 함께 해 오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선교사로 장학생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의 나눔을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모두가 잘 자라서 캄보디아 사회와 교회에 좋은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젊은 오피니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① 캄보디아 땅에 장학사업을 통하여 나눔의 기쁨이 배가되도록
- ② 매월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Mongolia 몽골 | 허성환 · 박미자 선교사



샬롬! 귀한 사랑을 나눠주신 도림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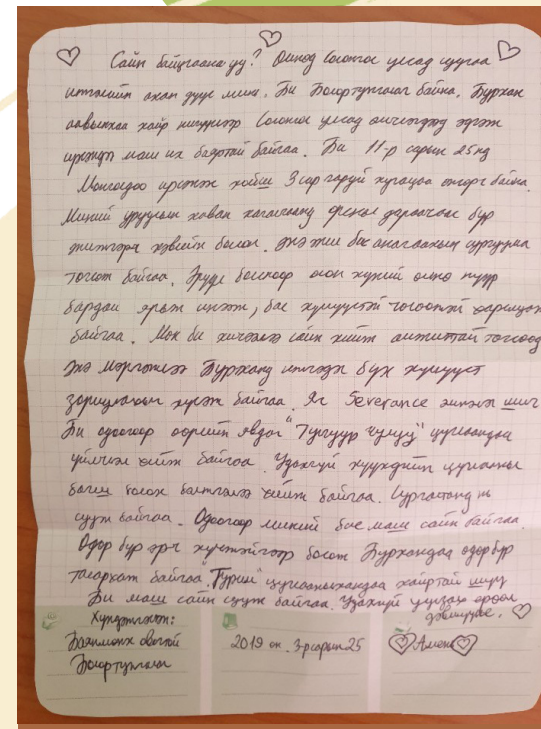
벌러러 통갈락 자매는 몽골 울란바타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3년 전부터 입술에 종양이 자랐고 몽골 현지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었습니다. 더욱이 몽골 의대생이고,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을 키우고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던 상황이었습니니다.

벌러러 통갈락 자매의 부모는 상대적으로 의료수준이 낮은 몽골에서 효과적인 치료와 수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한국인 선교사를 만났고, 도림교회의 후원과 섬김으로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수술하고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벌러러 통갈락 자매는 2019년 6월 의과대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은 몽골 국립 외과전문병원에서 실습중입니다. 몽골은 한국과는 다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몽골 외과병원은 간 수술로 유명하며,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에서 몽골에 간 수술 및 간 이식수술 기술을 이전받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통갈락 자매는 이 병원에서 실습을 마치고 졸업하면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칭찬이 자자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며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의과대 교수님들이 통갈락 모습을 보고 믿지 못할 한국의 의술이라고 말한답니다. 장래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기도제목

- ① 몽골의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 입는 가정들이 없도록
- ② 통갈락자매가 몽골 땅의 의료선교를 위해 좋은 인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벌러러 통갈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국에서 치료받고 몽골에 돌아와 기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받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저의 입술은 수술뒤 붓기가 없어지고 작아졌습니다. 저는 건강해져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웃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머릿돌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 있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림교회 정명철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_ 벌러러 통갈락 드림





Mongolia 몽골 | 김영주 선교사

샬롬! 늘 사랑으로 기도해주시는 도림교회 정명철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따뜻한 점심 후원

2015년 2월~현재까지 계속해서 후레대학교 학생 중에 경제적 사정으로 점심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나눔' 행사를 위해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배부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레대학교 기독교 알파 코스

2018년 9월, 2019년 3월 각각 4주간 후레대학교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인 알파, 베타 코스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봄 학기에 믿음을 더욱 더 굳건히 다지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알파, 베타 코스를 통해 후레대학교에 귀한 믿음의 씨앗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후레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우수학생 후원

후레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크리스천 학생 10명에게 한 학기 등록금의 50%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학생 명단: 허스자르갈, 이트젤, 너민자야, 어뜨게를, 톨바트, 투그두르, 하드바타르, 바트에르텐, 테무진, 가와) 이 학생들이 몽골 사회에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 민족을 성장시키는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018년 후레대학교 최우수 교수 선정

2018년 12월, 한해동안 나름 최선을 다해 사역에 애썼던 것을 격려해 주시는 의미로 제가 '2018년 후레대학교 최우수 교수'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위로로 여기고 늘 기도와 감사로 선교지에서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후레대학교 교육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해결되어 몽골에서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 ②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이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 ③ 후레대학교에서 신앙을 얻고 졸업한 학생들이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후레대학교 기독교 알파 코스



2018년 후레대학교 최우수 교수 선정



곽민수 교수 기념홀 헌정예배 및 기념식



후레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기독교 학생들





Malaysia 말레이시아 | 박은덕 · 이해정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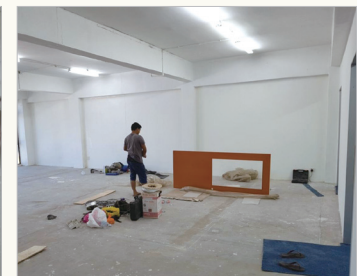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날마다 이슬람권 말레이시아를 위하여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지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해 가며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요, 도림교회의 끊임 없는 기도의 결실인 줄 믿습니다.

감풍 끄러링(K.G Kerling) 교회 건축

이 지역은 저희들이 전도하고 수년 동안 함께 교제해 온, 한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교인들의 소망을 모아 교회건축이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되었으나, 연말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건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땅이 굳을 때까지 몇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건축이 잘 진행되어 속히 성도님과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민교회 사랑의 쌀 나누기

원주민교회에 사랑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10Kg 한 포씩 나누었고, 특별히 난민학교 아이들과 고아원 2곳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시락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특별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난민학교 아이들에게는 매일 한 끼의 식사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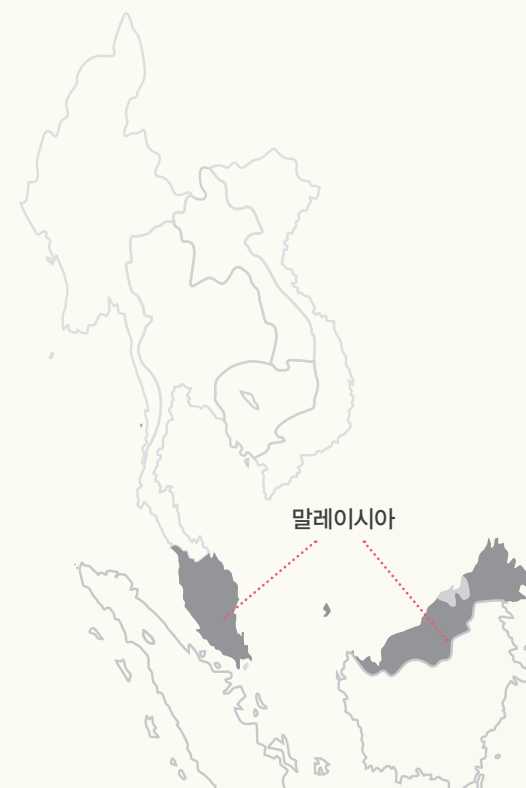


말라카지역의 가정예배 시작

“말라카”지역은 말레이시아가 처음 시작 할 때 말라카 왕국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3월 첫 주 주일부터 한인 한 가정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을 놓고, 10년 전부터 기도해왔습니다. 이 땅에 한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제목

- ① 건축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 ② 난민학교 학생들 학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③ “말라카” 지역에 시작한 한인예배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도록





태 국 Kingdom of Thailand

“자유 의 땅” 태국

태국의 정식 국명은 타이 왕국(Kingdom of Thailand)이다. 태국어로는 “쁘라텟 타이”라고 하며, “자유 의 나라”(Land of Free)라는 뜻이다. 이는 그 주변국이 19세기 서구 열강의 식민지였을 때에도 태국은 자유를 누렸기 때문이다.

국토 면적은 51.3만㎢로, 한반도의 약 2.3배, 남한의 약 5배이다. 국토의 반 이상이 삼림이지만, 평야가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하였다. 열대 몬순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으며, 여름·우기·겨울의 세 계절로 나뉜다. 인구는 6,898만 명(2017년 기준)으로 타이족 85%, 화교 12%, 기타 민족이 3%를 차지한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을 정도로 불교의 영향력이 크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소수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등도 있다. 화폐 단위는 바트(Baht)이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4,378억 달러(2017년 기준)로 세계 26위이다. 주요 자원은 고무·쌀·목재·주석·텅스텐·천연가스 등이다.

태국의 공용어는 타이어이다. “안녕하세요?”: [짜왓-디-크랍] “고마워”: [캅-짜이] “사랑해”: [락-나]

굴곡진 현대사

태국의 현대사는 쿠데타로 점철되어 있다. 첫 쿠데타는 1932년 6월 24일 왕족 전제(專制)에 의한 정치적 부패에 불만이 높아지자 인민당이 일으켜 입헌군주국을 발족한 사건이다. 1947년 군부 쿠데타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다시 내부의 분열로 1957년 9월과 1958년 10월 두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 의회와 모든 정권이 해산되었다. 1968년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양이 일어났으나 1971년 쿠데타로 군정으로 환원되었다. 1981년과 1985년에는 연이어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였는데 군부내 경쟁파벌의 견제로 실패로 끝났다. 이 당시 군부의 정치적 개입은 쿠데타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발화 평가절하 반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88년에 실시된 총선에서 차타이 당이 압승하여 문민정권이 들어서는데 기업가 출신 정치인들은 군부와 갈등을 만들게 되었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시도한 것이 역으로 군부 쿠데타를 다시 가져왔다. 군의 지속적인 정치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헌법은 대규모 국민적 저항을 촉발시켜 1992년 5월의 민주화운동을 불러왔다. 이는 태국 역사상 매우 비극적인 유혈사태였지만 시민의 힘에 의해 군부정권을 퇴진시키고 문민정권을 다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 국민의 권리확대, 부정부패 척결, 군부의 영향력 제거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담고 있는 신헌법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태국은 상당한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쿠데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6

년에 쿠데타가 일어나 기업가 출신 탁신 총리가 물러났다. 가장 최근 2014년 5월 22일에 발생한 쿠데타는 현재 총리이며 당시 육군 총사령관이었던 빠라웃 찰오차가 지휘하여 일으킨 사건이다. 최근까지도 연이어 발발하는 군부쿠데타는 태국 문민정치가 아직 미성숙하다는 것과 60년 이상 계속된 군부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여전히 견제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불교 문화

태국은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 명 이상의 승려가 있으며 사원·가정·사무실·상점까지도 불상을 모셔놓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나라이다. 불상과 승려가 신성한 존재로서 지고의 경의와 숭앙을 받는 곳이 태국이다. 매일 이른 아침 6시 30분 전 승려들의 탁발로 국민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며 시민 가정의 공양 모습을 항상 보게 된다.

국민의 국가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불교 신앙에서 유래되었다. 태국은 입헌군주국으로 국왕은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징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어 국민의 존경을 받는다. 오랜 세월 동안 주변국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을 지켜온 민족으로서 태국 국민은 국가와 자국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매우 강한 편이고, 또 유쾌함 속에서 정직과 자유를 추구한다.

태국문화의 기조는 인도, 미얀마, 크메르문화가 융합된 것이며, 스리랑카로부터 도입된 불교문화

역시 중요한 축을 이룬다. 태국의 각종 건축, 사원, 미술, 무용 등은 불교문화에서 비롯된 것들이며 불력(佛歷)도 사용하고 있다(서기+543). 태국은 또한 인도차이나반도 중 가장 음악이 발달한 나라로 손꼽힌다. 이는 인도계, 중국계, 남양계의 음악과 고유 음악이 합성된 것이며, 민간에 흘러들어간 캄보디아의 옛 궁중음악, 북부의 라오족과 사이암족 등의 민속음악, 남부의 말레이 민속음악, 화교의 음악으로 대별된다.

기 도 제 목

- ① 태국이 불교, 전통문화, 진혼(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는 의식)과 주술적인 관습에서 벗어나고 부처 숭배, 귀신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소서. 태국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돌파구를 찾아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게 하도록
- ② 군부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 정당과 군대와 왕실 사이에 깊고 복잡한 분열이 있는 태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불안을 일으키는 기업, 군대, 경찰 분야의 부정부패와 구조적인 죄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되게 하도록
- ③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태국 땅에서 개신교 단체인 태국 그리스도의 교회(CCT)와 태국 복음주의 연합(EFT)이 분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태국 교회가 토착화됨에 따라 복음전도, 기도네트워크, 공동체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도록

태국 비전트립 소감문1

한고은 학생

안녕하세요. 이번 태국 비전트립 4조 고3 한고은입니다! 이번 태국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팀원들과 사물놀이, 스낵드라마, 워십, K-pop등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갔던 곳은 태국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의 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논쎈 쿤윈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로 가는 길이 너무 비좁고 험해서 큰 차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작은 차에 옮겨 타 1시간 정도 가는 동안 멀미도 나고, 모래 먼지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차를 타고 왔던 그 길을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한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또한 한국문화체험으로 한복을 입혀주고 가족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풍선 하나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했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놀아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며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립니다.

다음날 사하밋학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는데,

이곳에 도림교회의 이름으로 학교가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뿌듯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문화사역을 발표할 때 사하밋 학교의 친구들이 크게 환호해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불러주었고, 우리는 태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서로 생긴 모습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태국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는데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저녁,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한 저녁집회를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에게 이번 5박6일은 지금까지 어떤 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태국으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국 비전트립 소감문2

윤한울 학생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고등부 비전트립을 다녀온 고등부 3학년 윤한울입니다. 친구들에게 함께 비전트립을 가자고 조르고 설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잘 마치고 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한국에 와 있는 게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을 느꼈던 사역 활동들, 아침마다 나뉘었던 말씀, 모두 모여 함께 기도했던 저녁 집회, 입맛에 맞지 않았던 음식,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던 동물들, 모래바람 맞아가며 탔던 낡은 자동차. 이런 사소한 일들 하나 하나가 다 기억에 남고 추억이 되었습니다.

처음 비전트립 모임 때를 생각하면 많이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낯선 얼굴들과 마주 마주해야 했던 시간들, 서로 말도 주고 받기 힘들었던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함께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사역을 같이 하다 보니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친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불편한 점들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잘 안 나와서 찬물로 씻고, 잠자리도 편치 않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다시 추워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의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순간순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하루 하루 지나면서 익숙해졌고, 이제는 모든 상황들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내 시간을 드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

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했던 Q1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사역에 임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저녁 집회를 통해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녁집회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생님들의 기도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나 자신이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팀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조장으로써 잘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잘 따라준 팀원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애들아 고마워~”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비전트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않고 또 가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쌤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 즐거운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2019 중 · 고등부 비전트립팀 화이팅!!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롬 12:15)

특집 태국 비전 트립

Photo News



태국 카렌족 선교를 위한 첫 발걸음

지난 4월 21일 주일 3부 예배에는 Dee Prateep(태국 카렌총회 사무총장), Suriyamonton Prawit(샤하밋 스쿨 이사장 및 학교장), 김영석 선교사가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건강한 선교지 학교가 세워지기 원하시던 익명의 후원자가 도림교회를 통하여 헌금을 하였고 그분의 뜻을 받아 선교지를 탐색하던 중 태국의 카렌족 중심으로 구성된 샤하밋 스쿨을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앙마이에서 포장된 산길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매형썬주에는 1957년 미국 선교사(Mr. carder)에 의해 설립된 샤하밋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태국은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만여 곳의 사원과 18만 명 이상의 승려가 있는 불교에 대한 열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샤하밋 스쿨은 설립된 후 10여 년 전 태국 기독교 단체인 TKBC(태국 카렌총회)에 인계된 후 신입생이 급감하였습니다.

특히 유치원 신입생은 전체 학생 수에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중, 고등학생 대비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인근에 불교단체가 100% 지원하는 최신식 시설의 공립학교가 세워진 이유와 함께 샤하밋 스쿨 내 유치원은 건물과 시설이 낙후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샤하밋 스쿨은 매일 학생들이 채플실에서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며 모든 학생은 일주일에 1시간씩 채플 수업을 받습니다. 이들이 자라나며 태국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소망하며 도림교회는 샤하밋스쿨 협력 및 학교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탐방 및 실무자 미팅을 통해 샤하밋스쿨 내 유치원 건축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협약식을 통하여 도림교회는 태국 샤하밋 스쿨을 위해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기독교정신을 가진 다음세대들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샤하밋 스쿨 내에 유치원 건물이 잘 건축되어져 신입생이 많아 질수 있도록
- ②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채플시간을 통하여 신앙이 깊어 질수 있도록
- ③ 학교를 졸업한 이들이 믿음을 잘 지켜 태국 전역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China 중국인교회 | 최황규 · 김은혜 선교사

중국 현지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교회 탄압

중국정부는 공산당이 이끅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무신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전 대륙에서 진행되는 '중국특색의 종교화'는 철저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시간 때 '공산당 찬가'를 부르게 합니다. 예배당의 십자가를 철거시킵니다. 십자가 위에 오성홍기를 달게 합니다.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삼자교회'도 교인수가 증가하면 각종 이유를 대며 문을 닫게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근본적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륙의 교회가 현재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런 시대에 국내 체류 중국인 130여만 명에 대한 선교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잠언 읽기 운동

교회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제결혼이민 중국여성들의 자녀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실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며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모색하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었습니다. 성경의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반복해서 읽고 나중엔 잠언을 다 외우게 하고 중국어 잠언, 영어 잠언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 차원에서 잠언 읽기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잠언 한 장! 이것이 표어입니다. 벌써 잠언을 다섯 번 읽은 어린이도 있습니다. 저는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자녀들에게 잠언읽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구상 중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서인 잠언이 어린이들의 영혼 깊이 잠겨들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여성 무수샤 자매 교회 봉사

서울중국인교회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자매가 있습니다. 무수샤 자매입니다. 중국 흑룡강성 묵단강 출신입니다. 국제결혼 이민여성입니다. 무수샤 자매가 올해부터 교회에서 상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중국 민주인사 우편룡 선생의 70세 생일

중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일생을 바친 우편룡 선생은 사상가이자 작가입니다. 18년 전에 한국으로 피신해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 선생을 도와주고 보호해왔습니다. 그가 7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현재 우 선생 책이 출판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중국에 대한 비전을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중국 대륙의 자유와 민주를 꿈꾸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미국이나 중국에 망명했듯이 이들도 사실 망명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황하의 물결》, 《黃河奔流》를 통한 문서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 ② 서울중국인교회가 선교를 위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③ 중국인 자녀들을 위한 '잠언 학교'가 잘 진행되도록



지난 3월 17일 주일날 에벤에셀 노회에서 교회개척 현황을 파악하고 지지하기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림교회에서 후원 중인 “왕의 왕”(el Rey de Reyes) 교회는 개척되어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일 설교자로 총회장님(아돌포 아리아스 목사님)께서 초청받아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현재 왕의 왕 교회 개척팀은 현지에서 2가정을 전도하여 조금씩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가 위치한 시우다드 데 카르멘 시는 해변가에 위치한 도시로 상당히 더운 날씨여서 당일 예배는 예배실이 아닌 야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열렸습니다. 주위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참석하여 개척 중인 교회를 지지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왕의 왕 교회는 노회와 총회의 돌봄 속에 건강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마스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팀이 계속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도림교회에서 후원중인 왕의 왕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여 멕시코 지역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수 있도록
- ② 왕의 왕 교회 아사엘 선교사님의 사역에 기쁨이 넘치도록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 13:31~32)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베트남도 봄이 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온 시내가 매연과 미세먼지로 늘 흐릿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푸르른 하늘이 새삼 귀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 교회(신학교 숙소 겸용) 부지 구입

2018년 12월에 에스더 교회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노이시 외곽에 위치한 땅인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라 저희들이 땅을 구입한 후 땅 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구입하여서 재정을 절약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면적은 82㎡(25평)로 넓지 않은 땅이지만, 이 땅에 세워질 신학교를 통하여 베트남에 복음의 불씨가 가득하게 차오르게 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소은행 지원

2018년 2월 말에 가난한 117농가에게 암소를 구입하도록 지원금 전달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암소은행은 농가로부터 상환되는 상환금으로 재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들이 이 암소은행 지원을 통하여 가난을 벗어나고, 아울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에스더 교회 및 신학교 숙소 건물이 순조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 ② 가난한 농가를 돕는 선한 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East Timor 동티모르 | 이대훈 · 김현옥 선교사



비는 생명입니다.

우기를 맞이한 동티모르의 날씨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매일 정기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센터를 짓는 공사에는 지장이 많지만 내리는 비를 맞는 동티모르 아이들부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비와 사이가 좋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즐기게 내리는 비는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언제 그렇게 생명을 심었는지 비가 내려서 물 밖에 스며든 것이 없는데 땅마다 초록빛 가득 머금고 생명을 싹틔웁니다. 그러나 비가 내린 하루에는 그 비를 주체치 못하여 누른빛을 품고 상류로부터 황토를 강물에 담아 마구 하류로 쓸어내립니다. 이 힘은 산을 깎아 내리고 강줄기를 바꾸어 놓고 푸르디푸른 바닷물로 흘러들어 누른색으로 바다의 색깔을 바꾸어 놓습니다.



B y A m a z i n g g r a c e o f G o d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자의 힘에 대항하듯이 새로운 싹이 돋아납니다.

바뚜보루 마을의 교육사업

바뚜보루 마을은 동티모르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유일하게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 중 오지 마을입니다. 해변에 차를 세워두고 급한 경사길을 따라 두 시간 반을 등산하여 도달하게 되는 기독교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평균 학력은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입니다. 학교에 다닐 여자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음으로 동생이 아닌 자신의 아이를 벌써 안고 있습니다. 겨우 14살입니다. 이런 교육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교육>입니다. 비록 유치원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까지 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큰, 더 넓은 도시로 나가 교육을 받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언젠가 이 마을 출신자들이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 다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겠지요. 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뚜보루 마을, <살롬 유치원> 개원식

오지 마을인 바뚜보루 마을에 살롬 유치원이 시작됩니다. 28명의 아이들을 접수시켜, 개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막을 친 임시 교실이지만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을 봅니다.

베르마누레우 마을 골고다교회, 미망인과 장애인 자활프로그램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투쟁과 내전을 겪으며 발생한 고아와 과부들, 골고다교회 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누가 돌보아야 할 것인가?', '이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 골고다교회의 고아와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는 몇 번이고 모여서 대화하고 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그린하우스>와 <닭장>입니다. 소득을 얻어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더 열심히 노동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골고다교회 <예일유치원>과 바뚜보루 마을 <살롬 유치원>의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 ②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동티모르의 미래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 ③ 현지인들과 정직하고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이젠 주님 품에서 편히 쉬세요.

몇 달 전에 저희 부부가 이곳 카보모 주변 지역에 노 방전도를 다니다가 우연히 들어가게 된 한 집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몇 년째 소변주머니를 차고 살고 있었는데, 소변주머니를 제때에 갈아주지 못해서 할아버지 근처에만 가도 악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할아버지에게 당연히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물어보았더니 인근의 작은 타운

에 있는 선교병원의 백인의사 선교사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병원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소변주머니를 바꾸러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이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날이 밝으면 햇빛 좋은 집 밖의 잔디밭에 나와서 하루 종일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더니 젊은 시절에 몇 번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로 병원에 가야할 때마다 교통비도 도와드리고 가끔씩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며 대화 상대도 되어드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것을 보고 전도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던 요한복음 쪽복음책을 드리고 기도도 해 드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할아버지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잠시 회복이 되어 짧게 대화도 나눌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감사했던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가난도 없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그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인도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기도드립니다.

복되고 보람된 선교지에서의 추석과 설날

지난 가을의 추석과 이번 설날, 이렇게 두 번의 명절은 저희에게 정말 보람되고 은혜로운 명절이었습니다. 일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키플레게렛 성

도들을 위해서 나이로비에서 원투원 제자훈련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난 추석에는 남자성도들 그리고 이번 설날에는 여자성도들을 대상으로 각각 일주일동안 원투원 제자훈련을 실시하여 남자 47명, 여자 44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선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키플레게렛의 성도들이 참 복되고 이런 성도들과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기도제목

- ① 원투원 제자훈련을 통하여 수료된 남자 47명, 여자 44명의 수료생들이 각자의 삶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 내도록
- ② 말씀을 사모하여 항상 선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키플레게렛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가 확장되도록



Costa Rica 코스타리카 | 유한나 · 이성재 선교사



살롬!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과 성도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는 2018년 12월 7일 5년간의 멕시코 사역을 정리한 후 중앙아메리카 남부에 있는 코스타리카로 왔습니다. 작년 4월 코스타리카에서의 캠퍼스 사역을 제안 받고, 기도하며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우남(UNAM)대학사역과 청년대학생사역은 함께 동역하던 선교사님께 잘 이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캠퍼스사역을 넘어서서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인들까지 사역의 넓이가 확장되었습니다. 멕시코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스타리카의 정식명칭은 코스타리카공화국(Republic of Costa Rica)입니다. 북쪽으로 니카라과, 남쪽으로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동쪽은 카리브해(海), 서쪽은 태평양에 면한 지협(地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토착화되고 정치가 안정된 입헌공화국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에 의해 군대를 폐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주민의 대부분이 독일과 스페인 이민자의 후손이며, 교육 수준과 생활수준이 중미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코스타리카로 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 라틴아메리카의 캠퍼스사역 전체를 관할하는 대륙본부 사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캠퍼스사역을 돕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한국에서 A6 Project 팀이 도착했습니다. 이 팀은 저희 부부와 2달 동안 지내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탐방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사역하며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팀과 함께 코스타리카의 대학에 캠퍼스 전도팀을 개척하게 될 텐데 좋은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① 코스타리카의 캠퍼스 사역과 대륙본부 사무실의 협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② 한국에서 온 A6 Project 팀과 2달동안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 ③ 코스타리카의 대학에 캠퍼스 전도팀이 잘 세워지도록

토마스 선교사

(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조선어를 배우며 한국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던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7월, 한문 성경을 가지고 조선의 서해안으로 향하는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사로 승선하게 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대포를 앞세워 조선 측에 강압적으로 통상을 요구했던 제너럴 셔먼 호는 평양 감사 박규수가 이끄는 조선군의 화공을 받아 불타게 된다.

당시 승선하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 또한 성경 몇 권을 품은 채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에 뛰어 내려 배를 탈출했으나 이후 강변에 다른 토마스 목사는 결국 조선군 병졸이었던 박춘권에게 생포된다.

죽음을 직감한 토마스는 자신을 죽이려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고 했으나 박춘권은 성경을 받는 것을 거부했다. 결국 토마스 목사는 품고 온 성경을 강변 여기저기에 뿌린 뒤 박춘권의 칼에 목숨을 잃었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된다.

토마스를 순교시켰던 박춘권은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일단락 된 뒤 강변에 놓인 성경책을 주워 귀가했고 이후 성경을 탐독한 그는 점점 개신교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게 된다. 이후 33년이 지나 60대의 노인이 된 그는 당시 평양에서 선교하던 선교사 마렛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1899년 세례를 받는다. 몇 년 뒤 그는 당시 교회의 최고 직분이었던 안주교회의 영수가 돼 여생을 전도에 바쳤다.

제너럴셔먼호 사건의 영향으로 개신교를 접했던 조선인은 박춘권 뿐만이 아니었다. 강변에 뿌려진 성서의 페이지들을 찢어 집에 벽지같이 붙이고 성경을 탐독했던 영문주사 박영식, 그 책을 여관주인인 최치량이 샀는데 놀라운 것은 여관에 묵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흥신길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의 동생도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고, 김영섭은 동생 동권과 함께 장로가 되었고, 항명대는 셔먼호가 불탈 때 “예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채 죽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뿌렸던 성경이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다.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는 웨일스의 개신교 선교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토마스 목사로 불린다. (매천아록에는 미국인 최난헌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최난헌은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 목사의 한국이름이다.)

도림교회 선교현황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사 60:22)



■ 협력 및 파송선교사

필리핀(최동아선교사) | 케냐(김홍일선교사) | 체코(이종실선교사) | 가나(남상열선교사, 에드몬드 예보아목사) | 중국(최창규선교사) | 베트남(김덕규선교사, 최다니엘선교사) | 러시아(동서선교회) | 몽골(김영주선교사, 허성환선교사) | 캄보디아(송준섭선교사, 룡웡마을) | 말레이시아(프랭키선교사, 박은덕선교사) | 남아프리카공화국(최인규선교사) | 북한(최필립선교사) | 동티모르(이대훈선교사) | 인도(김상수선교사) | 멕시코(아사엘선교사) | 코스타리카(유한나선교사) | 태국(김영석선교사, 최호득선교사)

■ 해외선교기관

땅끝선교회(미얀마) | 네팔새언약신학대학 | 라이프선교회 | 방파선교회 | 범양선교회 | 샤하밋스쿨(태국) | 파발마선교회 | 필리핀아태장신대 | 한독가교회협력위원회 | 한아봉사회 | SM선교회(볼리비아)

■ 국내선교기관

CTS기독교TV | 가스펠투데이 | 거리의천사들 | 계간농촌과목회 |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 뇌졸중장애인선교회 | 대한성서공회 | 브니엘의집 | 비정규노동선교센터 | (사)생명의길을여는사람들 | 실로암안과병원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 실천신학연구소 | 오도선교회 | 에녹선교회 | 영등포교구협의회 | 영등포교경협의회(경찰서교회)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영등포성서신학원 | 오록선교회 | 온땅선교회 | 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월간현대종교 | 장로회신학대학교 | 장신대동문회 | 장신대석좌교수 | 전국여교역자연합회(안식관) | 전국은퇴목사회 | 청소년성경구락부 | 총회군선교후원회 |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 | 평신도신문사 | 하늘정원수도원 | 한국교회언론연구소 | 한국교회법연구소 | 한국기독교공보사 | 한국기독교윤리학회 | 한국다문화학교(안산이주민센터) | 한국에큐메니컬연구원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사회기관

관악고등학교 | 대영고등학교 | 영등포여자고등학교 | 영신고등학교 | 영등포초등학교 | 도림동주민센터 | 도림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학금 | 영등포푸드뱅크 | 햇살보금자리(노숙자선교회)

■ 국내교회

가천교회 | 구미평안교회 | 나들목혁신교회 | 농기교회 | 당포교회 | 대림교회 | 대림동교회 | 두드림교회 | 동지교회(지체장애인) | 목천교회 | 명성교회 | 물댄동산교회 | 복흥중앙교회 | 사랑담은교회 | 사랑제일교회 | 삶이비전교회 | 새화순교회 | 서울중국인교회 | 성문교회 | 소망교회 | 아포행복한교회 | 안산은혜교회 | 엘사랑교회 | 여수도림교회 | 예수깃발교회 | 예수목동교회 | 온세상교회 | 용동교회 | 작은이의벗친구교회 | 조은교회 | 청원중앙교회 | 충주명성교회 | 푸른동산교회 | 평안교회 | 평화마을교회 | 하나교회 | 하나힘교회 | 하나목양교회 | 하늘빛우리교회 | 하늘정원교회 | 한벗교회(예사랑공동체) | 해양경찰청비창교회 | 행복한우리교회 | 햇빛교회

■ 군선교 20사단 기드온교회 | 엘리사교회 | 반석군인교회

■ 도림선교농장 필리핀

■ 카우뱅크 베트남

■ 사랑의 우물

가나(안치아시교회 수도시설, 아히메수 마을 우물관정) | 라오스선교센터 | 미얀마(보부교회, 아웅산 문화센터) | 말레이시아 인도 | 필리핀 아·태장신대 | 캄보디아(룡웡 우물, 썬다익중고등학교 우물, 또압쓰다익 마을 우물개발 및 펌프 물탱크 설치) | 신암교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atthew 24:14)

